

# 나는 화장실이 가장 편했어요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 금메달 획득을 기념해 현장에 있던 사진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랫줄 가운데가 박성일 기자이다.

A3 용지만한 종이에 커다란 글씨로 한가운데 '13'. 아래에는 '행운금은방' 이라고 적혀있는 부드러운 종이. 오늘은 아버지도 형도 엄마도 아닌 내차지다.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치면 으레 마루와 문 사이에 걸려있는 고운 종이로 된 달력 한 장이 사라져 있었다. 보통 금은방이나 은행, 철물점 같은 곳에서 고급스럽게 제작한 하루에 한 장씩 뜯을 수 있었던 달력을 말한다.

우리 집은 보통 그 날이 12일이면 13일자 달력이 걸려 있다. 항상 하루씩 앞서가는 우리집 달력이다. 새벽에 아버지께서 화장실 가실 때 주로 사용하거나 또는 맞아들인 형이 사용한다. 나는 항상 그 달력 옆에 있는 A4 용지 크기로 잘라서 철사로 구멍 뚫어 걸어둔 신문지를 사용한다. 간혹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날의 날짜 그대로의 달력이 걸려 있을 때는 내차지가 된다. 그 날은 똥이 마렵지 않아

도 무조건 찢어서 화장실로 달려간다. “아싸” 하고 외치면서. 그 날은 웬지 재래식 화장실인데도 냄새도 나지 않고 쾌적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듯 1970대 생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특히, 화장실에 대한 추억(추억이라기보다 기억이라고 하자)이 많을 것이다. 변소에 빠졌다는 사람, 몇 달에 한 번씩 커다란 구멍이 같은 지름이 10cm는 훨씬 넘는 녹색 호수를 칭칭 감은 트럭이 왔다가는 날이면 온 동네가 똥냄새로 진동해 코를 막고 놀았던 기억들.

우리 집은 내가 중학교 다니던 88년에 2층집으로 고치면서 거실 옆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며칠간은 대변을 보아도 본건지 만건지 시원치 않았다. 잔여물이 남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변한 것이 신문지에서 졸업했다는 것이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된 기쁨만큼이나 컸다. 아버지께서 쓰시던 하루짜리 달력도 두꺼운 마분지 느낌일 정도로 비교도 안되는 부드러운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나의 야들야들한 향문에 호감을 선사했다. 냄새도 나지 않는다. 문을 열어놔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장실문이 열려 있으면 꼭 한소리 하셨다. ‘옛날 사람 아니랄까봐 촌스

럽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화장실문을 닫았다. 이제 고급지고, 깨끗한 화장실은 우리의 생활이었다. 아버지께 혼이 나거나, 엄마의 잔소리에 귀가 따가울 때, 형의 주먹이 날라 오기 직전에는 화장실로 달려가 ‘찰칵’ 문을 잠그며 바지도 내리지 않은 채 좌변기에 앉아 짧은 한 숨을 내쉬었다. ‘어찌 이렇게 아늑할 수가...’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면서 화장실의 아늑함을 잊고 살았다.

화장실은 그저 씻고, 배설의 공간이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다. 이제 성인이 되고 공부와 연애와 미래에 대한 갈등과 도전으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사회로 나온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 온 지방인이었기에 서둘러 안정감을 갖길 원했으며 그렇게 되었다. 대학 4년 졸업을 앞둔 12월 캠퍼스 커플인 다른 과 후배와 평생을 약속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한 나에게 그녀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을...

우리는 강북에 조그마한 30년도 더 된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고, 장인 장모의 선견지명이 있었던지 결혼한 지 한 달 후 졸업식 전에 나는 당시 최고로 잘나

가던 스포츠지 기자로 취직되면서 새로운 나의 제2막 인생이 시작되었다.

수습 6개월, 단 하루의 휴일도 없었다. 나에게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는 신혼의 아기자기한 여유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마냥 좋았다.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주위 사람들도 ‘엄지척’ 해주었기에 짧은 신혼기도 그렇게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수습을 마쳤지만 바쁜 나날은 더욱 심해졌다. 한 달에 2주일은 지방 출장에 석 달에 한 번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욱 적어졌다. 아내는 드디어 참지 못해 외로움을 호소했고, 다툼이 없던 우리도 조금씩 큰 소리가 오가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공부를 더 하던지, 일을 하던지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했고, 아내는 대학원 진학을 원했다. 공부에 재미를 느낀 아내와 나는 또 다시 좋은 사이를 유지했고, 첫 아이도 생겼다. 새 생명이 생긴 기쁨도 잠시 아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휴학을 했고, 또 혼자 지내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일이 많아지자 힘들어 했다.

“우리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까? 장인, 장모도 좋아하실 거 같은데”

우리는 아파트 전세 계약 2년이 중

료되자마자 처가로 들어가서 살게 됐다. 아내는 이제 육아도 공부도 할 수 있어 좋아했고, 나의 늦은 귀가와 출장에도 투덜거리는 일이 없어졌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도 아내는 만족하는 눈치였고, 다툼도 없어졌다.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내와 나 사이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내는 대학원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해 3년차가 되었을 때 10년차인 나의 연봉을 훌쩍 뛰어 넘었고, 오히려 나는 최고를 달리던 스포츠지의 몰락으로 연봉 삭감은 물론 회사의 위기에 많은 선후배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맞았다. 출장도 그전의 반의반으로 줄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나에게 휴식 공간이며 안락한 공간이어야 할 공간인 집이 가시방석임을 서서히 느끼게 된 것이다. 아내는 받는 연봉만큼 늦은 귀가가 수도 없이 많아 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엄마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내에 대한 장인 장모의 눈빛도 곱지 않았다. 흘러가는 소리로 아내의 고생에 대한 걱정과 아내에 대한 원망도 섞인 말들이 많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집이 아니

구나' 하는 생각이 더 심해졌고, 하루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아이도 아직 어리고, 아내는 바쁘는데, 아이를 돌봐주시는 아내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은 간직해야지.

나는 스포츠지 기자이기에 주말에도 출근을 했고, 월요일에 쉬었기에 아이들과 아내와 갖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었다.

시나브로 다가오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감지했을 땐 이미 나의 가장 편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화장실' 이구나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도 언제부터 화장실 변기에만 앉으면 허벅지가 저리도록 앉아있었는지 몰랐다.

“당신 화장실만 들어가면 1시간이야? 당신 여자 생겼어?” 아내의 고함 소리에 아차 내가 화장실만 들어오면 씻지도 않고 변기에 앉아 있었구나! 내가 언제부터 화장실이 나의 최애 공간이었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하지만 언제가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습관인가? 아니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가장 편한 곳을 찾아 내 몸을 맡긴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냥 화장실이 가장 편하다. 휴대폰도 보고, 책

도 보고, 오락도 하고, 주식 시세도 보고…….

아내 모르게 돈을 벌어서 빨리 우리 가족만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주식투자도 해보고 친구와의 작은 사업도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가 모르는 빚만 수 억으로 불어났다. 그 빚들을 막기 위해 아내에게 했던 거짓말 하나가 불씨가 되어 나에 대한 아내의 믿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그렇게 8년이 지난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고 있다.

직장도 주말도 저녁도 없던 스포츠지에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종합지로 옮겼다.

집도 나 혼자 떠들고, 티비도 보고, 책도 보고, 음악도 크게 들을 수 있는 나만의 넓은 공간을 가졌다. 기자의 최고 전성기도 맛보았고,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생긴 요즘의 언론사 기자로서의 생활도 맛보았다.

많은 것이 변하고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나에겐 있었다. 나만의 공간, 혼자만 사는 나의 집에서도 화장실이 가장 편하다. 화장실에 책이 있고, 노

래도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도 없어진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앉아 있다. 퇴근 후에도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그렇게 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기사를 읽는다.

“당신 화장실에서 몇 시간을 있는 거야? 여자 생겼어?”

누군가가 이렇게 고함을 치더라도 이젠 '피식' 웃기만 할 거 같다. 🙄